

#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15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 엔비디아 주주 필독: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

### 엔비디아가 토큰 가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유

-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하며,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AI 산업 확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사업 목적은 더 이상 칩 판매에만 머물지 않는다. 토큰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속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토큰 단가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 지출은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는 “사용량 증가 속도 > 단가 하락 속도”의 구조가 깨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토큰의 생산 원가를 세대마다 수십 배씩 낮추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토큰을 더 많이 활용하는 새로운 사용처(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를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토큰 생산 원가를 과거 반도체 확장기의 트랜지스터 가격처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산업이 시장에 대두되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주장한 것은 고객의 총소유비용(TCO)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고객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토큰을 생성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토큰을 직접 생성하지 않는다. 토큰은 플랫폼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든다. 생산성이 좋아진 고객들은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할 것이다. 토큰 공급 능력이 늘어나면서 토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
- 반도체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트랜지스터 가격이 내려간 덕분이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 기본 구성요소인 칩의 가격은 18개월마다 절반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다. 트랜지스터의 평균 가격은 1968년 약 1달러 수준에서 2004년 약 1,000만분의 1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트랜지스터의 가격은 매년 약 36% 수준 하락한 셈이다. 트랜지스터의 떨어진 가격 덕분에 균용으로만 쓰이던 부품은 계산기,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으로 확산됐다. 매년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 폭보다 커졌다.
- 동일 성능 기준 LLM 추론 비용은 트랜지스터 가격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a16z의 2024년 11월 LLMflation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AI의 상식 시험에 해당하는 MMLU 벤치마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냈던 모델은 GPT-3였다. 당시 GPT-3의 비용은 100만 토큰당 60달러였다. 2024년 기준 동일한 점수를 내는 가장 싼 인공지능 모델은 Llama 3.2 3B였다. 100만 토큰당 0.06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3년 동안 동일 성능 기준 추론 비용은 1/1,000이 된 것이다. 해마다 약 90%씩 하락한 수준이다. 트랜지스터가 매년 약 36%씩 줄어들었다면, 동일 성능 기준 AI 추론 비용은 매년 약 90%씩 떨어진 셈이다. 연간 하락 배수를 비교하면 트랜지스터가 5년 걸린 가격 하락을 동일 성능 기준 LLM 추론 비용은 약 1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 ※ 참고: 트랜지스터의 연간 가격 하락 배수 =  $10^{(7/36)}$  = 약 1.56배/년,
  - 토큰의 연간 하락 배수 =  $(1,000)^{(1/3)}$  = 10배/년
- 구글의 CEO가 언급한 월간 토큰 처리량을 감안하면 AI의 확장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따르면 월간 토큰 처리량은 2024년 5월 약 9.7조 개에서 2025년 5월 약 480조 개, 2025년 10월 약 1,300조 개, 2026년 5월 약 3,200조 개였다고 한다. 2년 동안 약 330배, 단순 계산하면 매년 약 18.2배씩 토큰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간 관측치를 포함해 로그 변환 후 회귀해도 연 평균 성장배수는 약 19.4배다. 토큰 단가가 매년 1/10로 하락하더라도 토큰 사용량이 매년 19.4배 증가한다면 단순 계산상 토큰 지출 시장은 매년 약 1.9배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엔비디아는 디스플레이션을 만들어 프리미엄 가격에 파는 회사로 볼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칩 성능 평가 방식과 실적 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변경에는 엔비디아의 전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월 15일 엔비디아는 블로그를 통해 AI 총소유비용(TCO)과 관련해 토큰당 비용은 기업들이 AI를 수익성 있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하드웨어 성능, 소프트웨어 최적화, 생태계 지원, 실제 사용률 등을 반영하는 핵심 TCO 지표라고 평가했다. GTC 2026에선 와트당 토큰을 강조했다. 실적 공개 방식은 데이터센터의 최종 수요처를 1) 하이퍼스케일러, 2) 클라우드,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로 구분했다.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확장되고 있는 AI 팩토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 엔비디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Grace Blackwell(GB) 300 NVL72는 이전 세대인 Hopper 대비 토큰당 비용을 최대 1/35로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는 올해 본격 양산되는 Rubin 플랫폼이 Blackwell 대비 토큰당 비용을 추가로 최대 1/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두 수치를 단순히 곱하면 Hopper 대비 Rubin의 토큰당 비용은 약 1/3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비싼 장비를 팔면서 산출물 단가를 낮추는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칩이 비싸더라도 토큰을 많이 생성하면 토큰당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 엔비디아는 고객이 내릴 수 없는 '러닝머신'을 만들려고 한다. Rubin이 토큰 단가를 1/10로 줄이는 순간 구세대 장비의 토큰 생산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원가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치킨게임이 아닐 것이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는 구조가 아닌, 엔비디아가 세대 교체 속도를 높이며 고객을 내릴 수 없는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는 양상이다. 속도 조절은 엔비디아가 하려고 한다. 매년 신제품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기술 공개가 아닌 박자 선언이다. 2023년 GPT-4 출시 당시 고성능 모델의 추론 비용은 100만 토큰당 수십 달러 수준이었다. 현재는 유사한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저가 모델들이 100만 토큰당 센트 단위까지 내려오고 있다. 경쟁 속에서 일부 토큰 생산자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약 70%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사용량 증가 속도 > 단가 하락 속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고객들이 토큰을 더 생성할 유인이 필요하다. 젠슨 황 CEO는 엔지니어가 연 25만 달러 수준의 토큰을 안 쓰면 걱정된다는 말과 모든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토큰의 재판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 직원들을 위한 토큰 예산 지금은 수요곡선 관리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이유다.
- 챗봇의 토큰 소비는 사용자가 질문할 때만 발생하나, 공장의 로봇과 자율주행차는 잠들지 않고 매 순간 추론한다. 추론 모델이 질문당 토큰 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챗봇 수요의 포화를 미룬다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두 번째 토큰 수요 축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데이터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 엔비디아의 접근 방법은 산업 표준화다. CUDA 생태계 확장의 연속일 것이다. 데이터센터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CUDA라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개발 생태계가 CUDA 위에 형성되자 하드웨어는 자연스럽게 팔렸다. 로봇, 제조 영역 등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스택에는 Isaac(로봇 개발), GR00T(휴머노이드 기반 모델), Cosmos(물리 세계 모델), Omniverse(디지털 트윈) 등이 있다. 제조기업이 표준 위에 공장 소프트웨어를 지으면 해당 기업은 영구적 추론 수요의 가입자가 된다. 디지털 토큰과의 큰 차이는 수익의 귀속이다. 공장의 추론은 보안, 지연시간, 안정성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현장 장비와 엣지 인프라에서 실행될 여지가 크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GPU뿐만 아니라 공장 내 AI 서버, 엣지 컴퓨팅 장비, 로봇틱스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수익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 최근 젠슨 황의 방문 및 주요 기업 CEO들과의 만남은 의미가 크다. 주로 AI 팩토리, 로봇틱스,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언급됐다. LG CNS는 산업용 로봇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로봇 스택을 접목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GTC 타이베이에서 피지컬 AI 기반 모델 Cosmos 3를 공개했는데, 활용 기업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두산로보틱스를 공식적으로 호명했다. 삼성전자와는 차세대 HBM 공급을, 네이버와는 GW급 AI 팩토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엔비디아 플랫폼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조 및 로봇 실증 현장을 보유한 국가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겸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젠슨 황 CEO는 공급망 확보와 함께 산업 표준화를 위한 수요 창출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31.5	25,888.8	51,202.3	4,031.5	2,697.2
1W (%)	0.6	0.7	0.7	0.1	-2.4

주) 6월 12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6월 8일~6월 12일) 리뷰: 지정학적 불안 완화, 스페이스X 상장**

- 지난주 미국중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우리가 지난주 위클리리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6월 5일 발생한 변동성으로 주 초반엔 투자심리가 다소 약해졌으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서 증시는 반등했다. 3대지수의 수익률은 각각 다우지수 +0.7%, S&P 500 +0.6%, 나스닥 +0.7% 등이다. 변동성지수(VIX)는 9.6% 급락했다.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3.9%,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다.
-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13~15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MOU 체결 가능성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의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30일 내 해상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 미군 철수 등 안보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제 부문에선 석유 및 화학 제품, 파생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란 재건 계획 등이 있다고 한다.
- 시장참여자가 관심이 많은 스페이스X가 상장했다. 역사상 최대 IPO였다. 공모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청약자금이 몰렸다.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 덕분에 보유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시장참여자들은 스페이스X 상장이 유동성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으나, 미국중시의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스페이스X 덕분에 우주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커졌는데, 우주 관련주들은 스페이스X 상장일 모두 급락했다(로켓랩 -10.8%, AST 스페이스모바일 -15.5%, 플래닛 랩스 -8.8%, 인튜이티브 머신스 -13.1%, 에코스타 -11%).
- 상승상위 업종은 소재(+3%), 필수소비재(+2.6%), 금융(+2%) 등이고, 하락상위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9%), 에너지 -0.4%) 등이다. 소재는 철강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코와 스틸 다이내믹스는 4주 연속 주간 수익률 기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센터 덕분에 미국 철강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필수소비재는 증시 변동성 확대가 방어적인 성격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견조한 실적 기대감이 긍정적이다. 지난주 모건스탠리 미국 금융 컨퍼런스에서 은행들은 견조한 순이자이익과 트레이딩 수익 덕분에 2분기 호실적을 예고했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메가캡 기업인 알파벳과 메타의 약세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ETF(SOXX)는 10.5% 상승했다. 정기술 섹터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M7보다 비M7을 선호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2.4% 하락했고, M7을 제외한 종목들로 구성된 ETF(XMAG)는 2.5% 올랐다. M7에선 테슬라(+10.5%)와 엔비디아(강보합)만 상승했다(MSFT -6.2%, AAPL -5.3%, META -4.4%, AMZN -3%, GOOGL -2.4%). 테슬라는 스페이스X 상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자심리 악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소프트웨어 투자심리가 약해진 이유는 오라클과 어도비 실적 영향으로 보인다. 오라클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자금조달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연간 가이드선도 상향시키지 않았다. 어도비는 유기적 연간 반복 매출 둔화 우려와 CEO 사임 소식이 부정적이었다.
- 애플은 특별한 게 없었던 연례 개발자 회의에 대한 실망이 반영됐다. 모바일 시장의 강자기 때문에 엠티에 대한 기대가 컸다. 아직 AI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지배하기 위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소송리스크가 남아있다. 미국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두 회사는 항소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 » 이번 주(6월 15일~6월 19일) 프리뷰: 기준금리 결정, 케빈워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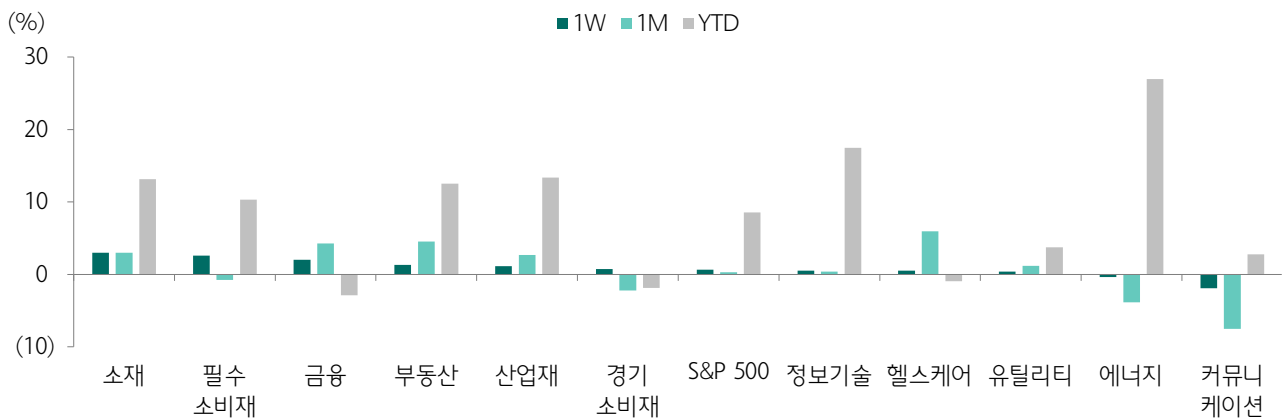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미국의 기준 금리 결정과 새로운 연준 의장 연설에 주목할 것이다.
- FedWatch에 따르면 이번 기준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시장참여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최근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주엔 ECB가 금리를 25bp 인상했다. 2년 9개월 만에 정책 금리를 올린 것이다. ECB 당국자는 필요하다면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나겔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중동전쟁이 진정됐더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보인다.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ECB는 다소 보수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률을 올해 0.8%, 내년 1.2%, 2028년 1.5%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평균 3%, 내년 2.3%, 2028년 2%를 전망했다. ECB 총재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으나, 장기 전망은 ECB의 목표인 2%에 고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했다. 유로존 미래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경제 성장률 하락 위험 모두 존재한다고도 했다.
- 6월 FOMC는 시장 전망처럼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여지가 있다. 완화된 표현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점도표에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 인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이런 연준 이사는 5월 21일 사임했다. 마이런 이사는 강하게 금리 인하를 지지하던 인물이었다. 점도표 구성이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 최근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했고, 연준은 고용 둔화 리스크보다 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5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수준으로 예상보다 강했다.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견조한 경제 덕분에 고용 둔화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추후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둔화 속도도 약해졌다. 관세의 영향은 다소 남아있으며, 유가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번 FOMC 성명서 내용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은 연준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 케빈워시의 발언도 중요하다. 취임 후 첫 FOMC다. 새로운 연준의장의 기초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다. 인준 청문회에서 케빈워시는 연준이 시장과 과하게 소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케빈워시 연준의장은 절사평균 물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너무 과하게 오르거나 떨어진 항목을 제외한 평균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다. 현재 연준이 관찰하는 핵심 PCE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워시가 절사평균 물가를 강조한다면 같은 물가 데이터라도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 6월 19일 미국증시는 Junteenth Day로 휴장이다. 준틴스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다. 미국 노예 제도가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9일에 기념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공휴일로 인정됐다. 준틴스는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연방 공휴일이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는 15일 6월 뉴욕 앰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이전치 19.6) / 5월 산업생산 YoY(이전치 1.35%) / MoM(예상치 0.2%, 이전치 0.7%), 16일 ADP 주간 고용변화(이전치 29,000 건) / 5월 수입지수 MoM(이전치 1.9%) / 5월 수출지수 MoM(이전치 3.3%) / 5월 주택 착공(예상치 1,440,000 건, 이전치 1,465,000 건) / 5월 건축허가(예상치 1,410,000, 이전치 1,423,000 건), 17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6%) / 5월 헤드라인 소매판매(예상치 0.5%, 이전치 0.5%) / 5월 핵심 소매판매(예상치 0.5%, 이전치 0.7%) / EIA 주간 원유재고(이전치 -7,227,000 배럴), 18일 기준금리 결정(예상치 3.75%, 이전치 3.75%) / FOMC 성명서 공개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1,795,000 건)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17일 JBL / KMX, 18일 CAN / KR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6/12)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31.5	0.5	0.6	0.3	12.1	9.0	24.3	8.6
나스닥	미국	25,888.8	0.3	0.7	-1.3	17.1	12.3	33.4	11.4
다우	미국	51,202.3	0.7	0.7	3.4	10.0	5.8	21.3	6.5
STOXX600	유럽	633.2	1.9	1.7	4.3	6.3	8.7	16.2	6.9
KOSPI	한국	8,123.6	4.6	-0.5	8.4	48.0	98.6	180.6	92.8
KOSDAQ	한국	1,029.1	3.2	2.7	-8.9	-10.7	9.6	33.8	11.2
상해종합지수	중국	4,031.5	1.1	0.1	-2.5	-1.6	4.2	19.4	1.6
심천종합지수	중국	2,697.2	1.0	-2.4	-5.7	-0.2	9.9	34.8	6.6
항테크지수	홍콩	24,718.1	1.9	-1.0	-4.8	-2.9	-3.6	3.5	-3.6
TOPIX	일본	3,882.0	1.3	-1.7	0.5	7.0	13.1	40.8	13.9
니케이 225	일본	66,020.0	2.8	-0.9	7.5	22.7	31.6	74.5	31.1
니프티 50	인도	23,622.9	2.0	1.1	-0.1	2.0	-9.2	-4.4	-9.6
Vietnam	베트남	1,791.7	-0.4	-2.6	-6.8	5.6	8.8	36.2	0.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6.1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소재: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호조로 뉴코·스틸 다이내믹스 등 철강 기업들 강세가 지속
- 필수 소비자재: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방어주 선호 심리 강화되며 매수세 유입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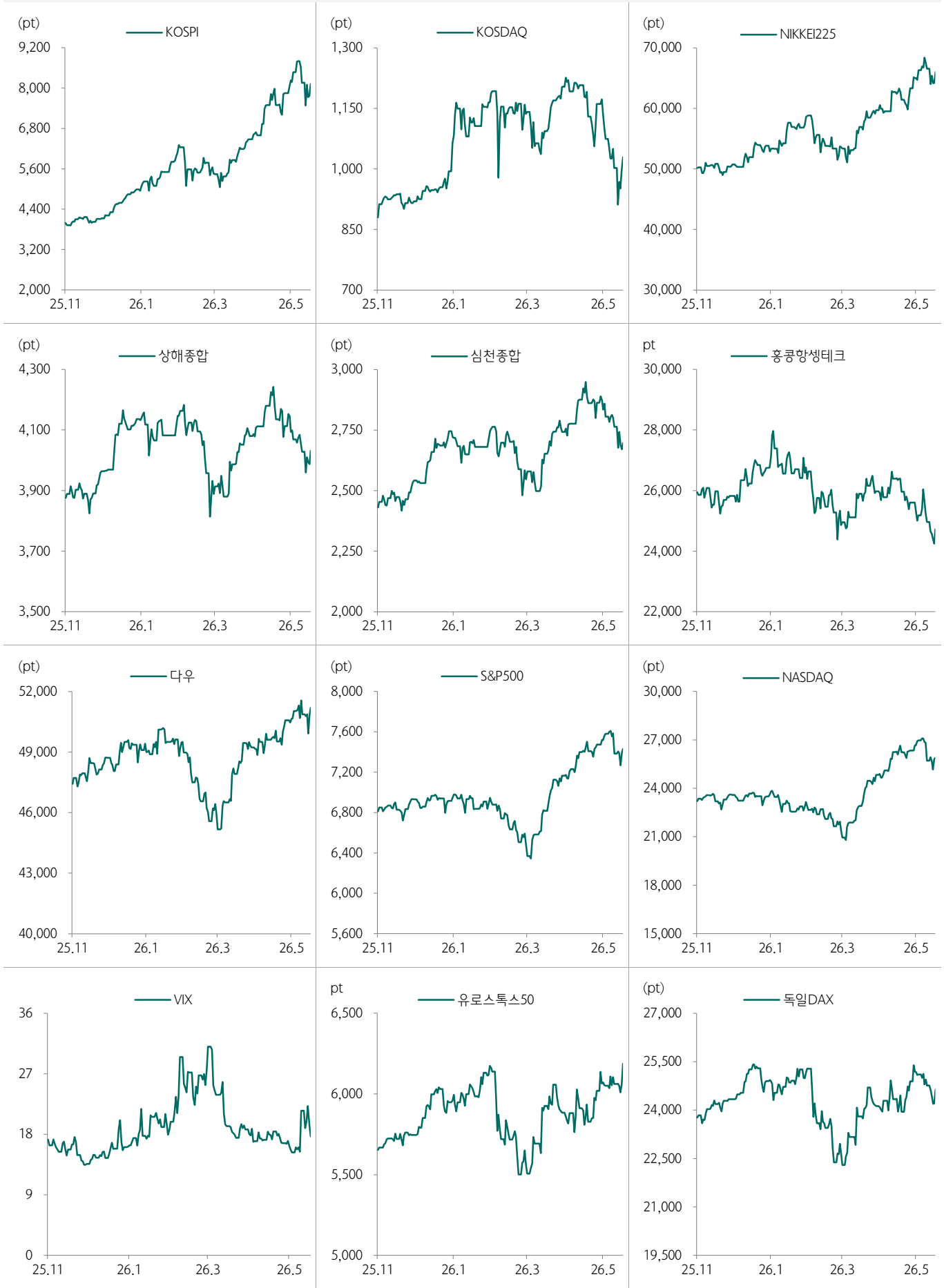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과 메타의 약세가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6/8	<p><b>코닝, 아마존과 수십억 달러 광섬유 다년 계약 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닝이 아마존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 9.03% 급등. 이번 계약에 따라 코닝은 아마존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광섬유와 케이블, 연결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 앞서 엔비디아도 코닝에 5억 달러 규모 주식 매입 권리를 취득한 바 있어,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광섬유 수요 급증의 핵심 수혜주로 부상</li> </ul>
6/8	<p><b>인텔, 구글 TPU 300만개 생산 의뢰 보도에 주가 10.8% 급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 인포메이션이 구글이 인텔에 2028년 TPU 300만개 이상 생산을 의뢰했다고 보도하며 인텔 주가 급등. 엔비디아도 GPU 4개를 단일 유닛으로 결합한 프로세서 제조에 인텔 기술 활용을 검토 중. TSMC의 공급 부족이 주요 AI 칩 설계 사들의 인텔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로, 인텔은 최근 애플-테슬라 테라팜 등과도 잇따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 중. D.A. 데이비드슨은 "인텔 지원은 미국 기반 제조 지원을 의미하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분석</li> </ul>
6/10	<p><b>오라클, 400억 달러 추가 자금 조달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라클이 2027 회계연도에 부채·주식 발행으로 4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다고 발표. 연간 CAPEX도 557억 달러로 기존 계획(500억 달러) 대비 10% 이상 증가. 4분기 실적은 EPS 2.11달러(예상 1.96달러), 매출 191억8천만 달러(예상 191억 달러)로 예상치 상회. OCI 매출은 YoY +93% 급증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주 잔고(RPO)는 6,380억 달러로 YoY +363% 폭증해 예상치(5,957억 달러)를 대폭 상회. 호실적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 부담 우려로 시간외 거래에서 5.86% 급락</li> </ul>
6/10	<p><b>크루소, 1.8GW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일시 중단...AI 수요 우려에 반도체주 급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센터 개발사 크루소가 고객사 요청으로 와이오밍주 사이엔의 1.8GW 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 개발을 일시 중단. 임차인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중 한 곳으로 추정. 대규모 AI 수요 약화 신호로 해석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30% 폭락, 나스닥 3.47%, S&amp;P500 2.14% 하락. 다만 크루소는 사이엔 중단에도 불구하고 총 4.9GW 규모의 계약을 확보 중이며, 텍사스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포함됐다고 밝힘</li> </ul>
6/11	<p><b>미국 5월 CPI 2023년 4월 이후 최고, 에너지가 상승 주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노동부, 5월 CPI가 YoY +4.2%, MoM +0.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에너지 가격이 YoY +23.5% 급등하며 월간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 휘발유는 YoY +40.5% 폭등. 반면 근원 CPI는 YoY +2.9%, MoM +0.2%로 예상치(0.3%)를 하회하며 2차 인플레이션 확산은 제한적. 견조한 고용과 물가 재상승이 맞물리며 16~17일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5월이 물가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li> </ul>
6/12	<p><b>미-이란 종전 MOU 서명 임박 - 이스라엘은 당혹, 이란은 온도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밴스 부통령 참석 하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발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합의의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영구 금지. MOU 잠정안에는 60일 휴전 연장·호르무즈 즉각 재개방·이란 핵 프로그램 포괄적 후속 협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란 외무부는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온도차를 보였으며, 이스라엘도 MOU를 "협상 개시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당혹감을 드러냄.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함</li> </ul>
6/13	<p><b>스페이스X 상장 첫날 시총 세계 6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에 주당 150달러로 상장해 161달러로 마감, 기업가치는 엔비디아·애플·MS·아마존·알파벳에 이어 세계 6위로 평가. 머스크의 총자산은 약 1조500억 달러로 세계 최초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으며, 이는 2~4위 자산가의 자산 합계를 상회하는 수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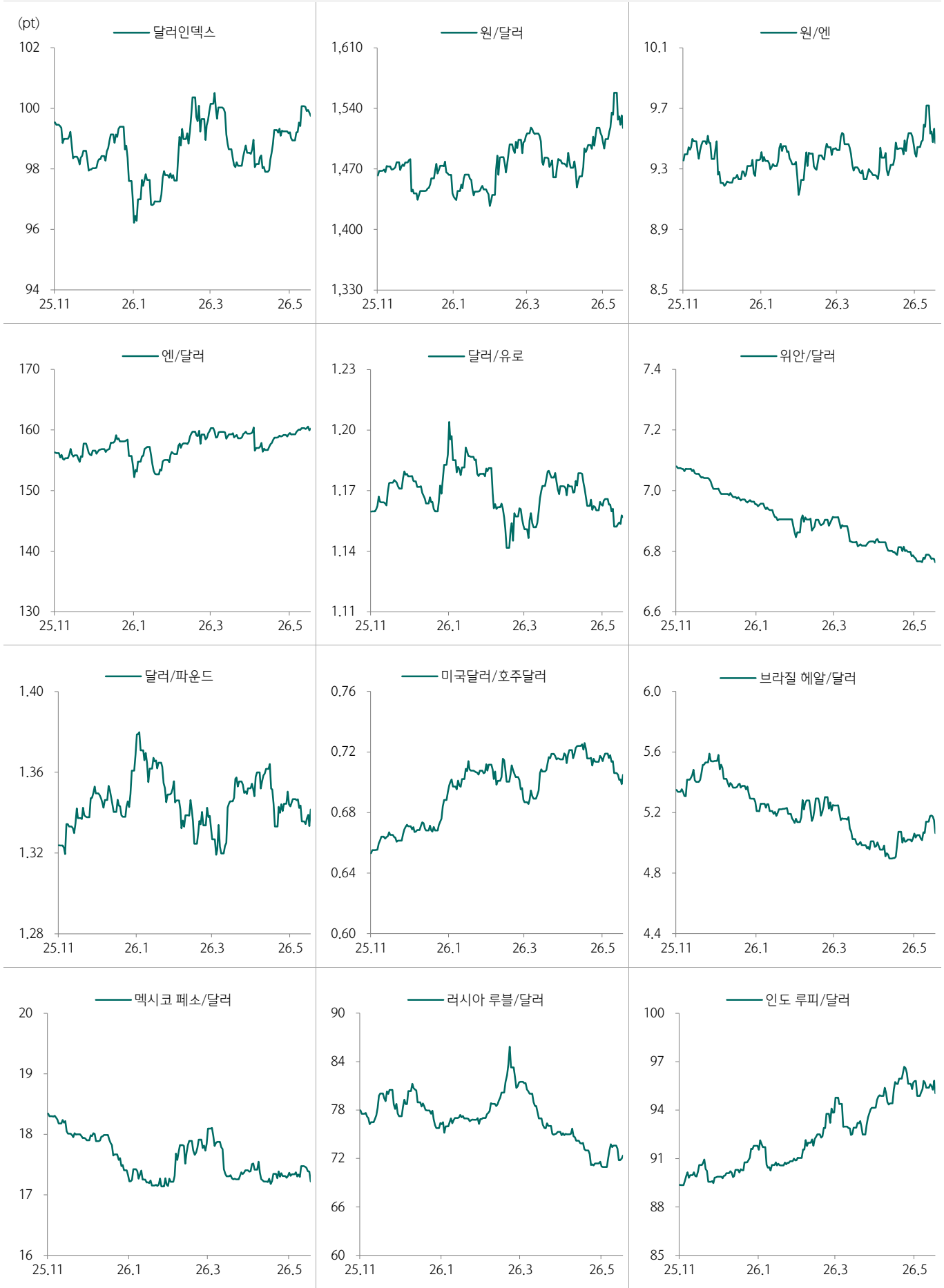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6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5
HPE CRDO SAIC	PANW DG ULTA DCI GTLB VSCO BWLP SIG	AVGO CRWD MDT M PAYP FIVE SSL VEEV	CLEN IOT PL LULU RBRK COO GWRE DOCU AGX TTC TTAN	ABM CMCM VIRC
8	9	10	11	12
CPB MTN	CASY SJM CNM SAIL	GME CHWY THO	ADBE KR RH	FRHC
15	16	17	18	19
CVGW CGC	ORCL UEC WLY	ATEX	CAN JBL DRI CMC	FDS KMX
22	23	24	25	26
LEN	FDX SUNB WOR LZB	KFY KBH	NKE MKC AYI BB	
29	30			
TLK DRVN	CCL AVAV PRGS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b>6/15(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이전 19.6)</li> <li>5월 산업생산 (YoY 이전 1.35%)</li> </ul>
<b>6/16(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수출/입 물가지수 (MoM 이전 3.3%/1.9%)</li> <li>5월 주택 착공건수 (이전 1.465M)</li> </ul>
<b>6/17(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소매판매 (MoM 이전 0.5%)</li> <li>5월 근원 소매판매 (MoM 이전 0.7%)</li> </ul>
<b>6/18(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결정 (이전 3.75%)</li> <li>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이전 -0.4)</li> <li>6월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 (이전 -2.8)</li> </ul>
<b>6/19(금)</b>	** 준틴스테이 휴장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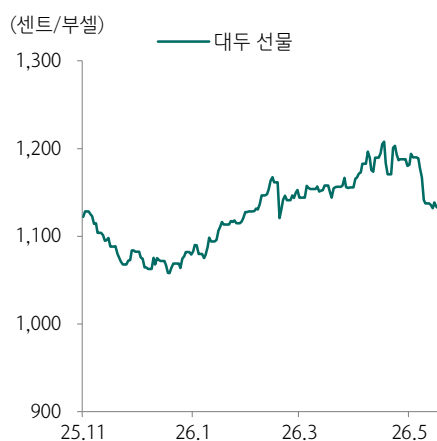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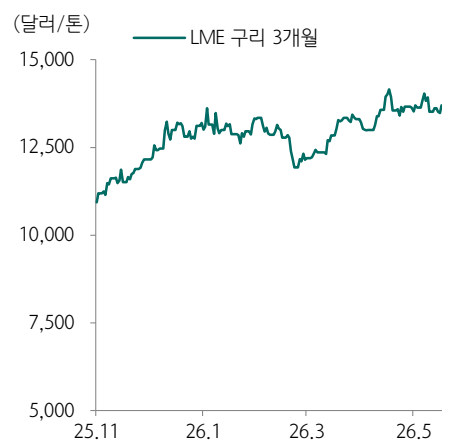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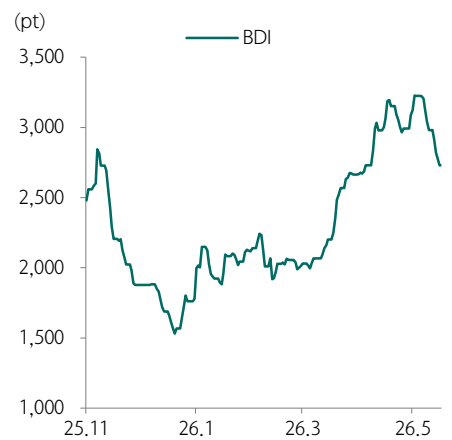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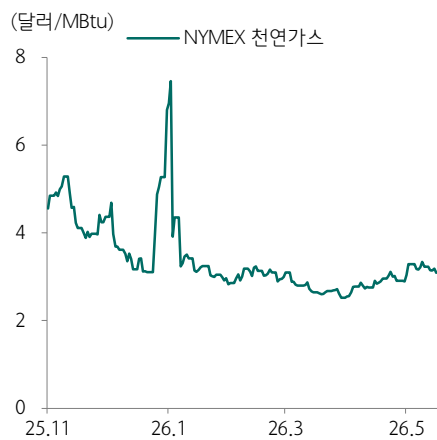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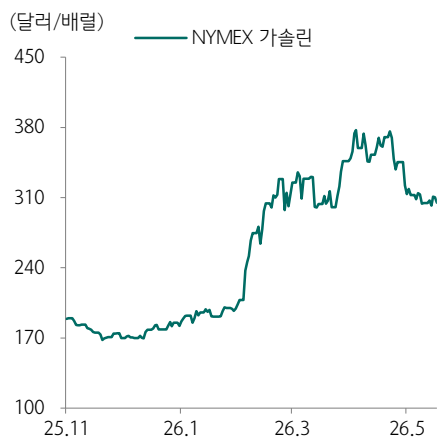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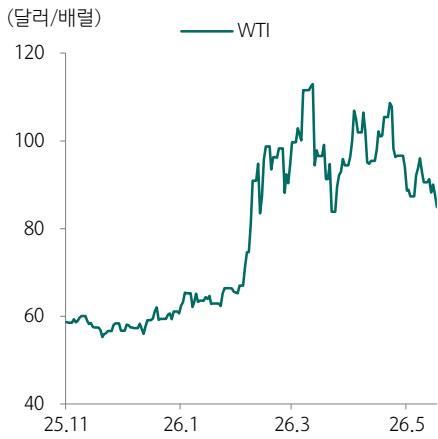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6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